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과 러시아인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중국노동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채 문**

A Study about the North Korean Labor Forces and Racial Prejudice of Russians in the Russian Far East: Comparing with the Chinese Labor Forces*

Chaimun Lee**

요약 :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노동력의 상황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과 함께 비교·고찰한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들의 인종적 성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치안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과 치안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양국 모두 러시아 극동지역내부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빈번하게 관련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과 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은 중국 노동력에 비해 훨씬 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중국 노동력에 대한 극동지역 러시아인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북한 노동력의 이용으로 한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러시아극동지역, 북한노동력, 중국노동력, 인종편견

Abstract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d compare the situation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labor forces in the Russian Far East (RFE). First of all, the past and present picture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labor forces were reviewed, and then local Russians' views about those foreign work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socio-psychological and public order aspect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both North Korean and Chinese workers were regarded as useful to the RFE from economic viewpoint, but not as beneficial to local Russians in terms of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o-psychological views of local Russians, North Korean labor forces were much more preferable to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is paper implies that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the development of RFE via North Korea workers is significant in that local Russians are very afraid of flooding Chinese workers there.

Key words : Russian Far East, North Korean labor forces, Chinese labor forces, Racial prejudice

1. 머리말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방대한 면적을 가진 지역이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과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연해주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 오헤츠크해의 수산자원, 사할린과 야쿠츠크의 천연가스 및 연해주의 방대한 농장개척 등의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이러한 경제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한인이 이주하여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거주하였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중앙 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던 상당수의 고려인이 현지의 민족분쟁의 격화로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선조가 이주하였던 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역이주함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회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로,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지역연구로 이어져,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의

* 이 논문은 2000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ecm@knu.ac.kr)

분야를 좀 더 구체적 살펴보면,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우리기업의 진출에 관한 연구, 한인 이주의 역사에 관한 연구, 극동지역에서의 한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한 연구 및 극동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인력이용, 특히 이 지역의 외국인 노동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면적이 방대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은 항상 부족하였고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문제는 당사자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바라고 있는 인근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으로 노동력이 진출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남·북한 협력이 국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 문제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남북한 모두에게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관계 변화의 시대를 고려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노동력의 상황과 러시아 극동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래 남북한 협력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은 도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본다. 둘째,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들의 견해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치안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협력시대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이 가지는 합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외국인 노동력

1)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외국인 노동력문제

과거 구소련시대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로 구성된 코메콘²⁾에서는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통합은 노동력의 공동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코메콘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력 이용에 관한 협력은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발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분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노동력이용에 관한 쌍무적인 협력은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1970년대에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1967년부터 10,000명 내지 12,000여명의 청가리 근로자들과 20,000여명의 폴란드 근로자들이 동독에서 일한 예가 있었다. 주로 폴란드나 불가리아인들로 구성된 20,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한 예와, 수 천명의 불가리아인들이 소련에서 일한 예도 있고,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온 수 천명의 근로자들이 몽고에서 일한 예도 있었다(Ванс, 1975).

사회주의권의 노동력이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하의 그것과는 다르다. 자본주의 국가간의 노동력 이동은 잉여가치에 관한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반영한다고 보면, 노동력이동은 자본에 의한 고용노동의 착취관계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간의 노동력이동을 자본주의국가의 과잉노동력과 노동 예비군에 대한 필요성에서 연유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노동력 이동을 당사국들간의 자발적이고 완전히 평등한 관계 위에 기초를 둔 상호협력과 상호원조의 한 형태라고 보면,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단합을 고양시키고, 당사국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각 국가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노동력이동은 협력 당사국들간

의 상호이해관계, 전문가에 의한 도움, 국가 기술 요원의 훈련, 일부 국가의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³⁾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노동력이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협력국간의 생산 자원의 공동이용과 효율성증가가 협력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라고 하여 본래의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들에게는 본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권리, 예를 들어 본국 근로자들이 가지는 조직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의료서비스나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권리 등이 보장되었다(Baissc, 1975).

구소련 시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는 1989년 당시 소련에서 일하고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 160,000명으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10개의 사회주의 국가 출신들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Ginsburgs, 1990, 7). 그러나 또 다른 통계는⁴⁾ 소련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를 약 12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베트남, 불가리아 및 북한에서 '자유계약' 방식에 의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특히 이들 중 60,000명 이상이 베트남 출신들로서, 이들 베트남 출신의 절반은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절반은 기계와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베트남근로자들 다음으로 많은 부류는 불가리아 출신들로 그 수효는 약 36,000여명으로서 주

로 이들은 소련의 벌목업, 광업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Ginsburgs, 1990, 7).

1989년 당시 소련극동지역에서의 외국인근로자들에 관한 통계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출신 근로자들의 수는 약 26,000여명으로 이들은 주로 북한, 베트남 및 중국출신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북한 출신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벌목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부류는 경공업과 벌목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인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의 순이었다 (표 1 참조).

2) 러시아 극동지역⁶⁾의 북한노동력과 중국노동력의 과거와 현재

(1) 이주의 역사적 배경(1860년대~1937년)

한인과 중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이주는 깊은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현재의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 이주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한인과 중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는 대략 1860년을 전후로 하여 시작되었다. 즉 1858년의 아이훈조약과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하여 러시아는 아무르주와 연해주를 차지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무르주에는 이미 약 10,500명의 중국인이 44개의 촌락을 형성하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

표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수(1989년 현재)

산업국가	현재 주	화재로 그려진 지역	북부 주	북동나라(1989)
건설업	1,963	---	400	2,363
중국	240	---	400	640
베트남	1,723	---	---	1,723
벌목업	---	14,270	7,200	21,470
북한	---	13,350	7,200	20,550
베트남	---	200	---	200
쿠바	---	720	---	720
농업	---	---	---	840
경공업	500	895	100	1,495
베트남	500	895	100	1,495
합계	2,463	15,165	7,700	26,168

자료: Minakir 1994, 183.

고, 연해주의 우수리강유역에서는 약 900명의 중국 토착민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수렵, 어업 및 인상과 사금채취를 하는 중국인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수는 모두 합해도 2,000명 내지 3,000명을 넘지 않았다(Граве, 1912, 4).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인들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는데, 문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처음 한인의 이주가 시작된 시기를 대략 1863년으로 보고 있다(Граве, 1912; Ким Сын Хва, 1965; 뒤바보, 1920; Киммангем, 1926).

중국인과 한인 이주자 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형성시기에 있었던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복을 보인다. 중국인과 한인이

가장 대규모로 이주한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였는데, 이 시기는 러시아인 이주도 상당히 증가하던 시기였다. 첫 번째 이주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중국인과 한인의 두 번째의 대규모 이주 시기는 1920년대였다. 당시 상당수의 중국인과 한인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고⁷⁾ 이들에게 러시아시민권도 비교적 쉽게 주어졌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자주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금장(砂金場)의 경우 황인종의 비율을 줄이려는 러시아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1910년 외국인국적자 제한법이 통과되어 사금장에서의 한인과 중국인 근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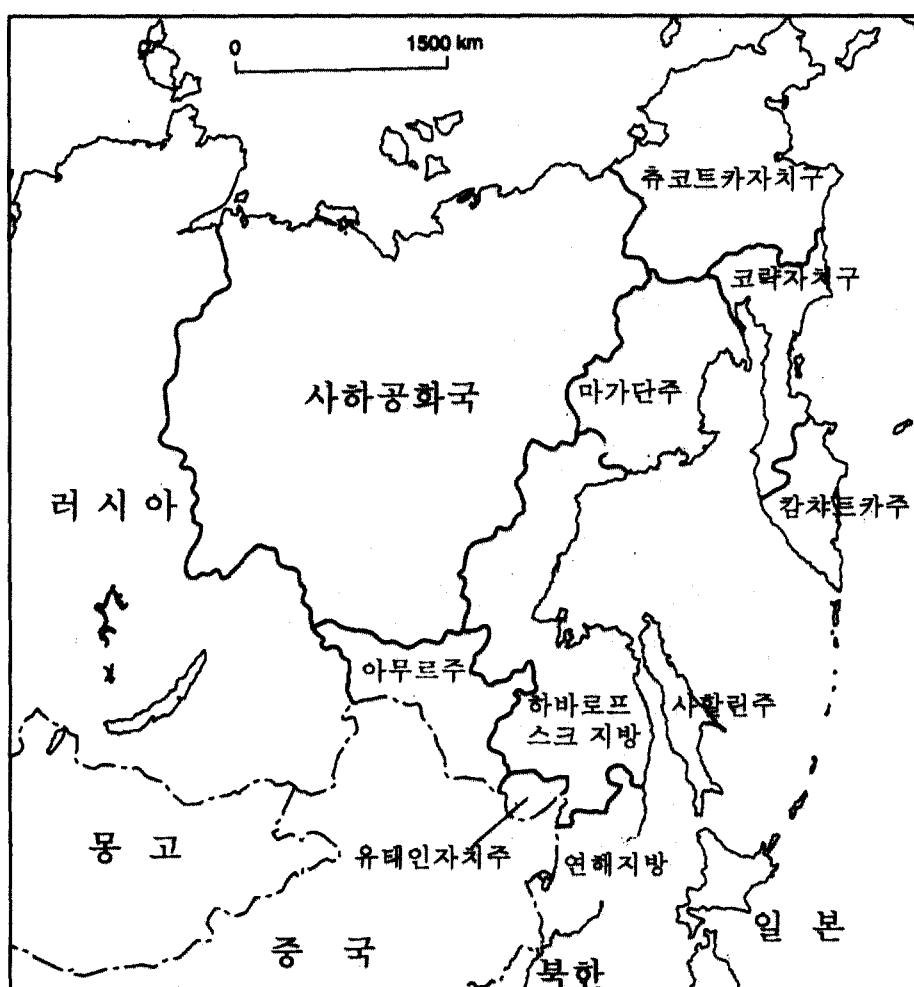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 극동지역 전도

수가 격감한 일도 있었다.⁸⁾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역사에서 중국인과 한인의 차이점은 한인의 경우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중국인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이다.⁹⁾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 중국인 이주자들은 극동지역의 상주인구증가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았으나, 한인들은 주로 상주할 거주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러시아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이주는 주로 불법적이고 범죄적 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소련의 국경강화조치에 따라 자주 중단되었다. 중국인 이주자들 중 단지 5%만이 극동지역의 상주민이 되었고, 모든 중국인이주자 중 단지 2%만이 소련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중국인이주자들의 총 수는 대략 50,000명에서 70,000명 사이였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2).

스탈린에 의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인과 중국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직전인 1937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극동지역의 한인수는 168,300명이었고,¹⁰⁾ 중국인의 수는 38,500명이었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3).¹¹⁾ 그리고 1937년 이들 한인과 중국인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고 그 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국인이나 한인에 의한 러시아로의 이주는 거의 없었다.¹²⁾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현재의 중국인들의 극동지역으로의 이주추세는 아주 새롭고 강력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2차 대전 이후 구소련의 북한노동력과 중국 노동력(1945~1992)

북한근로자들이 소련으로 진출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였는데 당시 소련에는 전전(戰前)부터 거주하던 상당수의 한인들이 있었다.¹³⁾ 해방이 되자 이들 한인들 중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의 고문관으로 약 300명이 북한으로 건너와 초기 북한정권내의 ‘소련파’를 형성하였다(Stephan, 1971). 이러한 북·소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 소련시대에 처음 소련으로 진출한 북한 근로자들은¹⁴⁾ 어업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하였고, 이후에 별목 노동자, 건설노동자, 농업노동자 및 광업노동자 등

이 진출하였다(이채문, 1998).

어업노동자들이 최초로 파견된 것은 1946년이었는데(김춘경, 1997, 16), 그후 12,000명의 북한 어업노동자들은 소련의 카차카, 사할린, 쿠릴열도 등지에서 어업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1년 내지 3년간 계약을 맺고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파견되었다¹⁵⁾.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북한과 소련의 합작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가공공장이 운영되었는데, 여기서 배와 장비는 소련이 제공하였으나 노동력은 북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의 어업근로자들이 이곳으로 진출하였다.¹⁶⁾ 초기에 송출된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이 만료된 후에 대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흘러져 임업노동자나 건설노무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소련공민증을 받고 소련국적을 취득하거나, 북한공민증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 별목노동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한때 가장 많은 인력을 점하고 있었던 부류였는데,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들 별목공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북한 별목공이 처음으로 소련에 파견된 것은 1953년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150만 입방미터의 침엽수별채권을 소련이 북한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련-북한간의 임업협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를 필두로 하여 1995년에 이르기까지 약 15차례의 임업협정이 있었다.¹⁷⁾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별목공의 수효는 정확히 알려진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1989년 하바로프스크 지역과 아무르지역에서의 별목공을 포함하여 약 20,550명이 있었다고 추산되며(Minakir, 1994, 183), 많을 때는 약 30,000명의 북한 별목공들이 15개 별목장을 4년마다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Ginsburgs, 1990, 7-8, 1992, 192).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들어와서는 별목장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생활환경으로부터 탈출한 북한 별목공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1993년에 만료된 임업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못한 채 6개월마다 가계약에 의해 지속되어 오다 1995년 2월 24일 평양에서 정식임업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의 임업협정에 명시되었던 15,000명 내지

20,000명의 별목공의 수를 7,000명으로 줄이기로 하였고(Yakubovsky, 1996, 461), 이들에게는 1일 8시간의 근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임시거주권이 지급되도록 하여 외출을 허용하였으며, 러시아의 당국자들이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 운영하는 별목장을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1994년 7,000명의 북한별목공이 러시아에 있다고 알려졌으며(Akaha, 1995, 103),¹⁸⁾ 1995년 이후에는 더욱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북한건설노무자들은 1948년 이후 어업노무자로 소련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어업노무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건설노무자계약서를 받아 건설노무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소련에서 건설노무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고, 또한 건설노무자가 되면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정혜정, 1995, 71).

마지막으로 아주 소수의 부류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농업노무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연해주의 우수리지역과 항카호 주위에 약 100여명의 북한근로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연해주와 여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북한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egelson 1990, 78).

한편 2차 대전 이후 소련거주 중국인들의 상황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중국인들의 수가 적은데도 기인하겠으나, 1960년대 양국의 이념노선과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된 긴장 때문이기도 하다.

구소련에 거주하는 중국인수는 195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25,800명이었으며 러시아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전체 구소련거주자의 74.1%인 19,100명이었다. 따라서 전전(戰前)의 인구조사시기(1937년의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로부터 2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중국인의 경우는 1/3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3).

그 후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중국인들이 처음 강제 이주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하다. 전후 중국과 소련간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이들 중국인들은 소련의 민족별

인구조사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1969년 다만 스키섬에서 양국간의 무력충돌 이후 격화된 중소국경 분쟁으로 1989년에 실시한 소련인구조사시기까지 재소 중국인들의 수나 분포에 대한 통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¹⁹⁾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혁, 종소간의 국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구소련이 붕괴한 것, 러시아의 경제적 혼란과 주권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지정학적, 외교적인 개념의 미정립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개선으로 러시아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주요도시에 대한 중국인의 무비자입국에 대한 합의가 중국인들의 대규모 입국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공식적인 중국인의 수는 1,742명으로 전체의 45%가 하바로프스크지역에 거주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연해주와 아무르주에 각각 9%와 11.5%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4). 그러나 1990년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인의 수는 1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약 100,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89년으로부터 최근 5년간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5).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 극동 러시아의 농촌지역과 대도시지역 등이다.

(3) 러시아연방시기의 북한과 중국노동력(1992~2000년)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전체의 북한근로자의 수효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먼저 통계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연해주에 4,149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00명은 초카노보, 오프치노프카, 슬라반카, 자루비노 그리고 북한 인근의 하산 등에서 농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 지역에서 약 3,500명이 산림벌채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는 대략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²⁰⁾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97년 연해주에서의 북한근로자들의 수는 공식적으로 3,000명이었으며, 당시 이는 연해주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3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동력수출의 대가로 북한은 연간 1,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다(극동문제연구소, 1999, 136-137).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봄에 집단적으로 건너와서 일하고 가을에는 북한으로 돌아간다.²¹⁾

또한 최근 국가정보원의 통계에 의하면²²⁾ 96년-97년 사이 20,000여명에 달하였던 러시아지역 북한근로자의 총수가 1999년에는 대략 12,000여명으로 줄었고, 2000년 현재 대략 3,0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북한인 및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월경, 밀수, 마약, 무기밀매단속을 위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과 별목장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보여진다. 2000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북한 건설대표부와 농업대표부에 각각 1,000여명과 500여명,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에 약 3,000여명 등 모두 5,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별목작업과 건설노무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지역간의 경제협력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연해주와 북한간의 협력은 건설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농업분야이다. 1999년 현재 연해주에서 등록된 북한과의 합작기업은 5개이며, 북한이 전액 투자한 기업 3개사가 등록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극동문제연구소, 1999, 136-137).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이 단순노무자였고 그 외에는 일부 전문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겨울철 비수기에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가 해빙이 되면 다시 연해주로 되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의 주요 도시에서 각종 건설공사, 신축건물 개보수공사를 맡고 있는데, 9개의 북한 건설총공사가 건설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인데, 1995년 4월 25일 연해주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농업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종묘사업, 콩과 야채재배, 가축사육 및 가축가공산업, 농촌지역의 주택건설 및 보수공사, 각종 농기계류점검 및 각종 농업자재수송 등이 있다(극동문제연구소, 1999, 136-137).

연해주 북한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북한으로 송금하여야 하며 월정액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으로 인정됨으로서 이들 북한 근로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무에도 일거리를 찾아 해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극동문제연구소, 1999, 136-137).

한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인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89년 러시아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수는 11,335명이라는 통계가 있다.²³⁾ 그리고 1994년 630개 단체에서 17,845명의 중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여 10,587명이 출국한 것을 통해서, 7,258명이 불법 체류자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岩下明裕, 1999, 5). 그리고 1998년 러시아 이민국의 문서에 의하면 26,528명의 중국인 건설노동자, 농업노동자 및 운전기사 등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입국하였다.²⁴⁾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최근 10년간 러시아 체류 중국인의 수가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추산으로는 약 10만 명에서 200만 명~300만 명이 러시아 전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⁵⁾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중국산의 값싼 경공업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고, 우수리지역의 타이가와 같은 천연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부족한 토지를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인의 활발한 러시아 진출은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하여 흑룡강성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적극적인 시장경제발전의 신호탄이 된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흑룡강성은 남련북개(南聯北開)의 전략을 취하여 중국의 남부지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였

다(岩下明裕, 1999).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한 전환을 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은 이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개방과 함께 극동지역 개방을 추진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출입자수와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3. 북한노동력과 중국노동력에 대한 러시아인의 성향

과거 구소련시대에는 여론과 행정적인 필요성이 서로 상충될 경우, 행정적인 필요성이 절대 우위를 점하였다. 따라서 일반대중의 여론이나 감정은 거의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여기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에 지고 있었던 많은 빚을 이들 외국인력 도입으로 상계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이들 국가들의 잉여인력을 도입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다는 소련식의 모델을 제시해야하는 정치적인 논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Ginsburgs, 1990, 43-44).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던 개방(гласность)과 개혁(перестройка)의 시절에는 행정적인 필요성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행정과 여론, 양자간의 타협이 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의 행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였다. 특히 행정적 개발계획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그 지역주민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중국인력 도입의 경우와 같이 러시아와 인접하는 국가의 왕복노동자(челночные рабочие)가 주로 이용되었는데(Ginsburgs, 1990, 43-44), 이들 외국인들이 러시아내의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인 규제가 있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현지주민의 감정간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칫 이러한 균형은 무너지기가 십상이다. 옐친이 집권하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주지사 등 지역의 주요관료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적인 필요성은 여론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과 북한 노동력에 대한 관점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심리적 및 치안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외국인 이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북동지역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 둘째, 최근까지만 해도 인접하는 러시아와 중국간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합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이주자들의 경제적인 관심과 인접하는 인구유출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과 영토에 대한 관할권의 주장 등이다(Захарова, Минл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1).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가들이 북한 노동력이나 중국 노동력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주로 지역주의적 관점이다. 지역주의는 1980년대 말 공산당의 권력 및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약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지역민의 요구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은 급속하게 신장되었다(이채문, 1998).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특히 중국인 노동력 유입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여 각종 선거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경향이 연해주 엘리트층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연해주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층은 거의 구소련시대의 공산권관료들로서, 이들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시장개혁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자치

를 위해 중국인 노동자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다(이채문, 1998, 2000a; 岩下明裕, 1999, 7-8).

또한 선거 시에도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연해주 주민들의 배외감정,²⁶⁾ 특히 반(反)중국적 감정²⁷⁾을 이용하여 연해주 주지사가 주도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인 노동력은 중국정부가 연해주 지역에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고, 중국과의 유화정책을 취하는 중앙정부를 비난하고 있다(Moltz, 1995; Kirkow, 1995).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있는 관료들은 연해주의 주지사인 나즈드라젠코(Евгений Наздратенко)와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인 이샤예프(Виктор Ишаев)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국경분쟁의 종식을 위해 중소양국정부의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연해주의 우수리지역에서 약 1,500헥타르를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타 지역의 영토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일컬어 모스크바 중앙정부가 러시아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인 노동력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보이는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앙정부를 고소하겠다는 선언까지 한 일도 있었다.²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9년 12월 러시아 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적인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러시아 자유민주당(ЛДПР) 당수였던 극우주의자 지리노프스끼(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도 중국을 러시아가 경계해야 할 적으로 지목을 하였다.²⁹⁾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 관료들이 중국정부와 중국인 노동력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성향은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리 나타난다. 실제로 연해주 주지사 나즈드라젠코는 경제침체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5년 봄 나즈드라젠코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건설업, 농업 또는 경공업 등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의에 서명한 일을 들 수 있다(Moltz, 1995). 이는 중국노동력에 대해 적대감이 깊은 연해주 주민들의 감정과, 과거 옐친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시장개혁 조치에 대한 반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이채문, 1998).

또한 연방정부의 일각에서도 러시아 인권단체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의 별목장을 북한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러시아간의 형제 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비중있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Ginsburgs, 1997, 384-86).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북한-러시아간의 경제 협력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내의 별목작업 정상화와 러시아의 농업, 건설 및 광산채굴 등에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이채문, 1998).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는 이제까지 전개해 왔던 ‘북한을 해체하는 정책’(политика оттор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 관점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에 대한 러시아인의 경제적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과 관련한 인구의 상황이다. 아래 <표 2>의 순인구증가에서 보듯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1989년과 1995년간의 인구변화에서 절대적인 인구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³⁰⁾(표 2 참조). 이는 구소련 시대에 인구유인정책에 의하여 극동지역 이주자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특권이 구소련 붕괴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구소련붕괴와 함께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체노동력만으로는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노동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러시아인들에게 상당한 실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비록 실업의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저임금의 힘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는 취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은 주로 외국인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다. 러시아 기업경영자들도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이러한 러시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전혀 흥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훨씬 쉽고 임금도 저렴하기 때-

표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변화, 1989-1995

(단위: 천명)

지역(군)	1989년	1990년	증감률	1991년	1992년	증감률
극동지역(합계)	7,941	7,667	-3.4	-274	160	-434
사하 공화국	1,081	1,035	-4.3	-46	65	-111
연해주	2,258	2,278	0.9	20	19	0
하바로프스크주	1,609	1,601	-0.5	-9	21	-29
유태인 자치구	216	216	0.2	0	3	-3
아무르주	1,058	1,051	-0.7	-7	21	-28
캄차트카주	466	423	-9.3	-43	9	-52
마가단주	386	282	-26.9	-104	10	-114
츄코트카 자치구	157	101	-35.5	-56	4	-60
사할린주	710	681	-4.2	-30	8	-37

자료: Госкомстат 1990; Госкомстат 1994; Госкомстат 1995(Heleniak(1995, 457)에서 재인용).

문이다.³¹⁾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저임금의 육체노동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인이나 북한인들에 의해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³²⁾ 중국인들은 주로 건설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오끼안스끼 합판 공장(Океанский Фанерный завод)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로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인이나 북한인 등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거주시키는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위생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주거설비가 된 부엌이 딸린 주택이 이들에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수산물 회사인 '달리 모리에쁘로도뜨(Дальморепродукт)'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빈 영화관에 수용하였고 또 오끼안스끼 합판 공장(Океанский Фанерный завод) 같은 회사에서는 이들 중국인들에게 비어있던 임시막사를 중국인 근로자들의 거처로 제공하였다. 1992년 6개월 간 150명의 중국인들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198,080 루블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중국인들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는 그보다 월등히 많은 57,732,000루블에 달하였다(Казаков, 1996, 113).

외국인,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업에서 특히 상당한 수준의 작업을 요구하는 석공(石工: каменщик)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Казаков, 1996, 113). 이와 같이 중국인들이 건설업에 주로 몰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택건설업이 봄을 이루게 되자, 석공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1992년경에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에서 240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건설청부업체를 찾기 어려웠던 이때를 틈타 중국인 건설청부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러시아 측은 중국업체와의 하청계약을 통해 상호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체적인 건설사업의 조건에 합의하였다.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러시아청부회사들, 예를 들어 '사유즈리프트몬파즈(Союзлифтмонтаж)' '빠드제스뜨로이(Подземстрой)' 등이 독점하고 있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도 이들 러시아 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중국인 건설청부업체와의 이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Казаков, 1996, 113).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건설인력의 도입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인의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 현지의 러시아인들에게는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은 결코 정당화되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오끼안스끼 합판 공장(Океанский Фанерный завод)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함께 일하던 작업장에서 68명의 러시아인들이 무급휴가를 떠난 일도 있기 때문이다(Казаков, 1996, 113).

이러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러시아인들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타관 사람 노동자들 때문에 연해지방 고장사람들이 애먹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실업자 수가 늘고 있는데(96년의 실업률은 약 16%) 어째서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렇게 된 것은 우선 생활수준이나 임금 면에서 연해지방 실업자가 매우 못하는 간격을 북한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연해지방 경제에 저 임금 분야가 존재하는 한 거기서 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가 참는 수밖에 없다”(中澤孝之, 1998, 52)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질은 중국이나 베트남 근로자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지 러시아인들의 노동의 질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별목공의 경우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중국인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 근로자들의 별목한 목재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별목된 목재보다 질이 떨어져 러시아 근로자들이 생산한 목재보다는 약 25% 싸게 해외에서 팔렸다(Minakir, 1994, 183; Wishnick, 1995, 267; Lilley, 1993, 23; Kim, 1994, 1066-67).

특히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 노동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인 노동력과 비교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예를 보면 1994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태인 자치구(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에서 이 지역의 공터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부족한 농산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중국인들의 노동력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나태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인들과의 계약은 무산되었다. 그 대신 그 대안으로서 북한 노동력과의 계약을 검토한 경우가 있었다.³³⁾ 비록 유태인자치정부가 북한측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농업기구, 비료 및 근로자 주거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계약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러시아인들이 바라보는 북한 근로자들의 질은 중국근로자들에 비해 결코 뛰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노동자의 경우 러시아로서 고려해야 할 측면은 빚 상환의 문제이다. 러시아로서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상환 받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바자노프, 1997). 실제로 1949년 이후 북한이 소련에 진 채무의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1980년대 중반의 환율을 기준으로 낮추어 잡아도 매년 8억 루블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Ginsburgs, 1989, 420).

러시아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북한 근로자의 임금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1989년 8월 2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북한-러시아간의 합작건설사업에서는 건축물자와 장비는 소련이, 그리고 노동력은 북한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의 50%는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20%는 소련 측이 제공한 건축시공기술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으며, 20%는 소련 측의 물자로 북한에 제공되었고, 남은 10%는 소련의 루블화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³⁴⁾

1992년의 경우 북한 근로자 1인당 작업에 대해서 받는 임금은 1,400루블로 이는 러시아 근로자 1인이 받은 임금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측과의 공사대금의 지불에 있어서 절반은 구소련에 진빚을 갚은 데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 측의 수산물로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Казаков, 1996, 114). 수산물 이외에도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비료나 러시아산 자동차 그리고 목재 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자는 모두 러시아내의 타지역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이다.

3) 사회 문화적·심리적 관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노동력에 대한 심리적 우려는 중국인에 의한 인구압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바이칼 호수에서 태평양 연안까지의 국경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경계선에 속한 중국지역에서는 약 3억의 인구가 있으나, 러시아지역에서는 단지 8백만의 인구만이 있을 뿐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2040년경에는 러시아 노동력이 현재의 수준에서 약 1/4 정도가 감소할 것이

라는 예측으로서,³⁵⁾ 만약 이러한 예측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인의 이주가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중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유입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의 중국인이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을 러시아가 획득한 이후 수적으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되리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근거로서 최근 10년 간 러시아 체류 중국인의 수가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약 10만 명에서 200만 명~300만 명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1세기 종엽이 되면 러시아에서 중국인들의 수는 러시아인 다음으로 많은 2번째 최다인구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³⁶⁾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소도시 나홋카에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820명 가운데 중국인이 659명을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고,³⁷⁾ 뿐그라니쓰니 같은 지역에서는 18,000여명의 주민들 가운데 8,000명이 중국인이며,³⁸⁾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중국인 거주자의 수가 러시아인의 수와 비슷한 곳도 있다고 한다(戴萬欽, 1996, 72). 더욱이 지역에 따라서는 중국인의 수가 현지 러시아 주민의 수를 능가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는데, 연해주의 파르티잔스크에서는 러시아 주민의 수가 7,000명이나 중국인 이주자의 수는 15,000명이나 된다고 하며, 또한 라죠 지역의 한 농장에서는 50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인 노동자는 단 3명밖에 없어 이 지역의 약 100여명의 러시아주민들은 중국인의 정착을 두려워한다고 한다.³⁹⁾

또 하나는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경 지역, 예를 들면 아무르지역과 같은 곳에 중국인 마을(китайские деревни)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 계획의 추진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식량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6), 현지의 러시아인들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89년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TV 토론회에 대해 많은 러시아 시청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근로자들이나 아시아지역

기업인들의 활동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이 지역을 황무지로 내버려두겠다고 했다(Hauner, 1992, 252).

중국인에 대한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견해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간의 경제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 '슬라브석유공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유력한 매수자로 간주되었던 중국석유총공사(CNPC)가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정부의 압력으로 주식매수 시도를 포기하여야 했던 것이다. 물론 주식매각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회사도 러시아 국내회사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었다. 당초 '슬라브석유공사'의 주식가격은 총 20억불~25억불로 평가되었지만, 중국 측은 이보다 훨씬 높은 37억불을 매수금액으로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다.⁴⁰⁾ 그러나 중국측이 유력한 매수자로 소문이 나돌자 러시아 국회에서는 '중국위협론'을 내세우며 중국측이 매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장쩌민이 러시아측의 배려를 촉구하면서 보낸 친서에서 장차 중국측은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자재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러시아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현재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는 중국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엄청난 우려가 나타났다.⁴¹⁾ 이로인해 급기야 '슬라브석유공사'의 주식은 16억 8천만불이라는 헐값에 엘친시대의 석유재벌이었던 아브라모비치의 회사에 매각되면서도 중국측은 매각협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시베리아지역과 중국을 잇는 송유관 사업이다. 이것은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유전인 안가르스크(Ангарск)에서 2,400km 떨어진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다칭(大慶)유전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초대형사업으로 러·중 양국에서 수 년간의 협의를 통해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11월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면서, 안가르스크-다칭 송유관을 제쳐두고 훨씬 더 장거리인 안가르스크-하바로프스크-나홋카 사이를 연결하는 4,000km의 송유관을 먼저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먼저 중국의 다칭을 연결하는 대형 송유관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몰려 들 것이며 이는 필

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상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측의 독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안가르스크-하바로프스크-나홋카 송유관은 거리상으로는 훨씬 더 멀지만 모두 중국영토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영토내에서 건설가능하고, 잠재적 석유의 고객으로서 한국, 일본, 미국 및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이 가능함으로서 중국측의 독점을 방지하여 “중국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⁴²⁾

그러나 중국과 중국노동력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러한 우려의 감정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마약밀수 및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의 러시아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 일은 있으나 중국인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노동력과 북한 노동력을 비교할 때 과거 구소련시대 시베리아개발을 위해 중국인 노동력 대신 북한 노동력을 쓸 것을 검토한 일이 있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엘리트인 구소련의 관료들과 공산당 성향의 러시아 하원의원들은 엘친정부의 북한경시정책을 비판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가능성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⁴³⁾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가 북한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는 탈북자가 체포되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이를 탈북자들을 과거와 같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묵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⁴⁴⁾ 그 이유로서는 러시아인이 꺼리는 열악한 노동을 탈북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탈북자들의 노동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최창동, 2000, 84-5).

4) 차안의 관점

러시아 전문가들은 198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를 출입하는 중국인을 다음의 6부류, 즉 ① 잠재적 투자가(потен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оры) ② 공장

이나 정부기업체의 대표자(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во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фирм) ③ 도매상인(оптовики) ④ 왕복노동자(китайцы-челноки) ⑤ 학생, 성직자 및 통역사(студенты, клерки, переводчики) ⑥ 범죄자(китайские криминалы) 등으로 나누고, 이들 중 특히 범죄자들에 대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은 유입의 성격에 따라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근로자들에 의한 불법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과거 러시아 혁명 이전 중국인들의 이주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러시아로 오는 목적은 목재와 같은 자원의 획득 및 불법적인 수출과 수입, 다양한 범법활동 등을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인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나이로 볼 때 주로 30세 미만이며, 여성은 1/3도 되지 않는다는 특성들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6).

예를 들어 인구 210만 명의 우수리스꼬는 연해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데 가장 큰 중국시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러시아 극동전체 지역으로 중국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의 지하범죄는 주로 이곳을 무대로 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살인, 강도, 절도 등 외국인관련 범법 행위의 80%는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머지 16%는 북한인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는 4%는 베트남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⁴⁶⁾

먼저 현재, 중국인들의 불법 러시아 이주는 러시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법적, 경제적인 혼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국경을 개방한 것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무역 및 조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자유화한 것 등이 극동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사업가, 학생 및 관광객의 형태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중국인에 의한 러시아로의 사업상의 여행과 관광여행의 95%가 왕복무역(челночная торговля)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이주의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충분한 사전작업이 없이 중국인들을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무비자로 입

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6).

그 이외에도 중국인은 러시아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토지소유권을 장기간 임대하는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중국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중국인 촌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중국인에 의한 야채재배를 위한 부지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인 이주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들에는 자원이용허가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음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러시아의 풍부한 침엽수림(тайга), 하천 및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이 주장해온 일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값싼 중국산 소비재를 유입함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러시아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7).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인들보다 엄격한 노동의 규율을 유지하며 법을 잘 준수하고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이들을 위해 따로 건립된 임시 숙소촌이 있으며, 이 숙소촌은 조립식가옥과 이동야외주택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식당, 목욕실 및 사우나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이들 근로자들은 북한에서 가져온 물자로 완전 자급자족하며 생활한다. 이들 건설기술자와 건설노무자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규율만을 담당하는 특별(감시)요원들이 이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Казаков, 1996:114) 규율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기, 이들 감시요원들에 의해 러시아의 북한근로자들이 끊임없는 감시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의 규율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근로자들이 훨씬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주어진 작업 이외의 여러 가지 상업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현지 러시아인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였던 중국인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달리 취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북한근로자와 중국인근로자에 대한 러시아인의 관점은 양국노동자의 규율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노동력보다 북한노동력에 대한 선호와 감정이 양국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노동력의 질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의 문제로 보여진다. 1992년부터 중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 규율은 상당히 느슨해졌다(Казаков, 1996, 113). 중국인 노동력의 경우 이들을 감시할 감시원이 러시아로 파견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북한 노동력의 경우 현재의 북한의 국가체제상의 문제로 이들을 감시할 인력이 함께 함으로서 이를 북한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더라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1994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유태인 자치지구에서 이 지역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이 지역의 유류지를 경작할 외국인으로서 중국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가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중국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나태하며, 심지어 농산물을 훔치는 등 규율이 극히 무질서하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북한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검토한 경우가 있었을 정도이다.⁴⁸⁾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끔 보도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 의한 밀수문제는 현지 러시아인들에게도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마약이나 아편 등을 러시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거나⁴⁹⁾ 러시아를 거쳐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밀반출하는 도중 적발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소련에 오랫동안 거주한 북한의 고위관료가 모스크바의 한 언론기관에서 폭로한 북한당국에 의한 밀수를 통한 달러벌이는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⁵¹⁾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건설작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별미로 하여 이곳 러시아에서 암암리에 상업활동을 하는 예가 많아졌다. 그리하여 러시아 어업회사 우피스 달리비(УПИСС <Дальрыбь>)는 중국노동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아랍국가들과 아프리카에 등에서 경험을 쌓은 북한의 건설회사와 청부계약을 맺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Казаков, 1996, 113).

다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북한당국이다. 과거 러시아 극동지역의 목재 별목장에서 별목공들에 대한 혹독한 인권유린에 대한 실상이 탈출한 북한 별목공들에 의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1993년 만료된 러시아와 북한간의 임업

협정은 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속되어오다 1995년 2월 24일에야 정식임업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에 의하여 북한 별목공들에 대해서 외출이 허용되도록 임시거주권이 지급되었고, 북한 별목공들은 러시아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여,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다(이채문, 1998, 150-152).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영내에서 북한에 의해 운용되는 별목장의 감옥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가능케 하는 북·러 간의 임업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⁵²⁾

4. 맷는 말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노동력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부류가 바로 이 중국인 노동자이며 그 다음이 북한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현지 러시아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항상 중국 노동력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러시아인의 경제적 관점과 치안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근로자가 중국 노동자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근로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값싼 생필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치안의 관점에서는 양국 모두 러시아 극동지역내부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빈번하게 관련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과 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중국 노동력에 비해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을 훨씬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4,300km나 되는 긴 국경을 공유하면서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중국인의 심각한 인구압력에 시달린 러시아로서는 중국인들보다는 '평화적인 점령'(мирная оккупация)의 위협이 없는 북한 인에게 좀 더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점은 중국인에 대해서 가지는 정치지도자들의 비판적 성향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이 3자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면 다음의 <도표 1>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림 2> 속의 3자간의 관계를 보면, 러시아인과 북한 노동력 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노동력과 북한 노동력 간의 관계는 상호 경쟁적이 될 것이며, 그리고 러시아인과 중국 노동력 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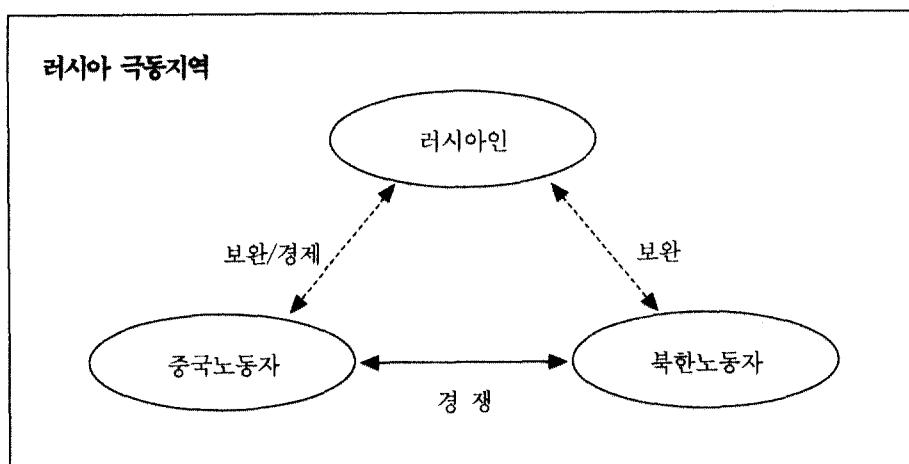


그림 2. 북한노동력, 중국노동력, 및 러시아인 상호간의 역학관계

국 노동력에 대한 러시아인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자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다가올 남북한 협력시대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한국의 기업체나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북한관련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인 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에는 북한의 노동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중국노동력과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북한 노동력의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노동력에 대한 극동지역 러시아인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북한 노동력의 이용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노동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진출에 있어서 북한 노동력의 이용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⁵³⁾

덧붙여서 사회주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남북한 협력사업을 할 경우, 북한측이 오랜 기간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은 장차 남한측이 북한에 진출했을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올 남북협력시대에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사

이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와 호남 정치학회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민족 발전전략”(2001. 6. 7~6. 8, 전남대)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조선대 김수희교수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註

1)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Рыбаковский(1994)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기 힘든데, 이 연구는 최근 구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불법 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노동력과

일부 북한 노동력을 다루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지역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관한 문헌을 분리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서는 George Ginsburgs(1997, 1992, 1990, 1989)가 쓴 논문들이 돋보이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구소련 붕괴이전의 북한 노동력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다음 구소련 붕괴 이후의 시기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 연구로는 이채문(1998, 125-185)이 있으며, 심의섭·김종일(1999, 33-53)은 북한의 벌목공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채문(2000a)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국인의 역사와 현 실태를 활화론과 관련한 중국 노동력에 대한 편견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북한 노동력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 이외에 Bazhanova(1992)는 북한과 소련의 경제협력을 연구하면서 일부 소련주재 북한 노동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에 관한 연구는 구소련 붕괴 이후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인 노동력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인 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大津定美(2000, 67-87), 이채문(2000a), 岩下明裕(1999), Kim Won-bae(1994), Hyer(1996, 289-308), Hao(1991, 230-258), Lukin(1998) 등이 있다. 그 외 소련 성립이전의 제정 러시아시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에 대한 연구로서는 何萍(1998, 273-318)과 Siegelbaum(1978, 307-330) 등이 있다.

- 2)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또는 СЕВ: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은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기구로서 냉전 중이던 1949년 1월 서방세계의 경제봉쇄에 대항하여 자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방세계의 EC에 비유되는 것으로, CMEA로 부르기도 한다(平凡社, 1989, 655).
- 3)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초기 북한 근로자들의 재소파견의 하나의 형태로서 북한 유학생들에 의한 근로실습(work-study)을 들 수 있다. 이 근로실습은 북한정권 초기에 소련의 원조로 지원된 기계와 장비를 작동할 기술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48년 8월 4일 북소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렇게 소련으로 파견된 북한학생들은 소련대학의 교과과정을 강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도제제도 등을 통하여 실습하도록 하였고 이 실습에 참가한 대가로 일정한 급료를 지불받았다(이채문, 1998:140-141).
- 4) И. Ушаков(1989),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интегр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ран-членов СЕВ, no. 6., стр. 18-19, Ginsburgs(1990, 7) 재인용.
- 5) 소련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원자재가 많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산물 이외에 비료나 러시아산 자동차 그리고 목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물자는 모두 러시아내의 타지역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었다. 또한 극동지역의 오끼안스키 합판 공장(Океанский Фанерный завод)같

- 은 업체에서는 중국인 전설회사와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현금 대신 비료나 아니면 자체 생산한 합판, 가구, 건축자재 등을 지급하였다(Kazakov, 1996, 114).
- 6) 러시아 극동지역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첨부한 <그림 1> 러시아 극동지역 전도를 참조할 것.
 - 7)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에 대한 개괄서로는 Ким Герман (1999), Кан и другие (1997), 이상근(1996), 현규환(1967), 임계순(1987), 권희영(1993), Ким Сын Х ва(1965), Граве(1912)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사회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채문 (2000b, 2000c, 2000d)을 참조할 수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는 Граве(1912)와 Захарова и другие(1994)를 참조할 것.
 - 8) 당시 사금장에서의 러시아노동력과 주로 한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노동력의 비율이 약 85% 대 15%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황인종 노동자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총독 운데르베르게르는 극동에서 주지사와 상공업 및 농업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연해주총독 관할지역과 자바이칼의 이르쿠츠크총독 관할지역에서의 외국인 국적자 제한법”(Закон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в пределах При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и Забайкальской области Иркут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некотор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лиц, состоящих в иностранном подданстве)을 발의하였고, 이 법은 1910년 6월 1일에 러시아 황제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Хроленок, 1995, 74).
 - 9) 이러한 견해는 러시아인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와 중국간의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러시아 극동지역의 영토에 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을 일축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즉 당시의 중국인들은 이곳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계절노동자(сезонник)로서 봄에 이곳으로 와서 일을 하고 가을이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왕복적인 성격(челночный характер)을 띠고 있었으므로 중국이 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2; Хроленок, 1995).
 - 10) 그러나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강제이주 완료 후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이자 국가안전위원회 의장인 예조프가 스탈린과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의장인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서한에 따르면 1937년 10월 25일 극동지방에서의 한인이주가 종결될 때까지 총 36,442가구 171,781명을 124대의 수송열차로 이송하였다고 하였다. 남은 한인들은 캄차카 및 오후츠크의 특별이주자 700명 정도라고 적고 있다(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1992, 158). 따라서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1)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자의 수는 자료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60년대부터 1937년까지의 러시아 한인이주수의 추이에 관해서는 이채문(2000d: 118-120)을 참조할 것
 - 12)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에 관한 최근

- 통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0년대 초기에는 극동지역 거주 한인의 대부분이 사할린(62% 이상), 연해주(15%), 하바로프스크지역(15%)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로 본다면 1970년대 초기와 비교했을 때 약 13%가 감소했고, 특히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는 두 배 이상 감소하였다. 전후 러시아 극동지역전체를 볼 때 한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한인의 총수는 56,6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 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 14). 현재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대략 43만 명으로 주요 거주지역으로서는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지역 이외에 사할린(약 36,000명), 우즈베키스탄(약 160,000명), 카자흐스탄(약 150,000명), 키르기즈(약 12,00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Г. Чародеев, “Сеул положил глаз на наших корейцев” Известия 9. 3. 1999). 1999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독립국가 연합 고려인 총수는 486,000명으로 그 중 153,000명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95년 108,000명에서 45,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대 이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수는 220,000여명에서 181,000명으로, 그루지야 고려인수는 250명에서 50명으로, 아제르바이잔 고려인수는 10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조선일보 2000. 3. 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 검색일 2001. 2. 9.).
- 13) 2차대전 이후 처음 실시된 1959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수는 313,735명이었고, 이는 전전(戰前)에 행해진 1937년의 인구조사시기에 밝혀진 한인 총수 168,300명과 비교해 볼 때, 2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한인의 수는 약 1.9배 증가하였다. 1970년 소련의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한인의 수는 약 357,507명으로 전체 소련인구의 약 0.14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59년보다 약 14%가 증가하였다(Ginsburgs and Ginsburgs, 1977:963).
 - 14) 북한 근로자들이 소련에 진출하는 근로형태의 하나는 근로실습(work-study)인데 1948년 8월 4일에 조인된 북소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소련에 파견된 학생들은 소련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실 내에서 수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제제도 등을 통하여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여 일정의 급료를 받도록 하였는데(이채문, 1998),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소련에서 근로실습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수는 2,000명이 넘었다 (Bazhanova, 1992, 157).
 - 15)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118, Far Eastern Series 103, released Jan. 1961, pp. 107-108 Ginsburgs(1989, 400; 1990, 6)에서 재인용.
 - 16) 나고시(名越健郎, 1992:99)에 의하면 캄차카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수효가 약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 17) 이러한 러시아-북한간의 임업협정의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이채문(1998, 145)을 참조할 것.

- 18) 그러나 러시아의 유력지 이즈베치야는 1994년 약 15,000명의 별목공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борис Резник, "Корейцы расконсервировали в тайге старый урановый рудник" *Известия*, 1993년 7월 23일).
- 19) 이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나의 민족으로서 분류가 되어있는 한인의 경우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 20) 이 통계는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학자인 자브로프스 카야(Лариса В. Забровская)여사가 1997년 10월에 발간된 *Океанские Вести* 제6호에 기고한 것이다(中澤孝之(1998, 51) 재인용).
- 21) 동아일보 1997. 12. 31.(<http://www.donga.com/fbin/searchview>, 검색일 2001. 2. 9.)
- 22) 디지털조선일보 2000년 10월 26일(<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10/200010260061.html>, 검색일 2000. 10.26.)
- 23) Юрий Савенков, "Ходоки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Известия* 2. 1. 1997.
- 24) Юрий Савенков, "Ходоки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Известия* 2. 1. 1997
- 25) "Китайцы в России: Второе пришествие" *Известия* 9. 30. 1999
- 26)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 극동지역 방첩대장 뼈로즈나 야고(В. Пирожняк)의 진술에 의해서도 잘 대변되고 있다: "中國人正在靜靜地擴張. 中國人故意促使公司合同失敗以獲取違約金. 把手中的俄羅斯現金一舉拋出造成經濟混亂. 另外還在政府的支持下購買軍事技術"(岩下明裕, 1999, 5).
- 27) 대표적인 것에는 국경지방에서의 전염병 감염의 원천으로서 중국을 지목하는 예도 있다: Владимир Михеев, Геннадий Чародеев, "Авиатор подверг Китай двойной проверке, но кто даст гарантии, что ящур из-за Великой стены не гуляет по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звестия*, 14 марта 1997г. стр. 1.
- 28) Сегодня 22 марта 1996г. стр. 2. Борис Резник, "Русский с китайцем... Игра без правил. Кто в выигрыше?" *Известия*, 11 ноября 1996г. стр. 4.
- 29) 지리노프스키는 러시아의 3대 적으로서 극동지역에 서는 중국, 카프카즈지역에서는 터키, 그리고 서구에 서는 미국을 지목하였다("У нас с вами три врага. Зде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 Китай, на Кавказе - Турция, на Западе - США. Все три мечтают о гибели России, все три мечтают разделить нашу страну. Они ничем не отличаются от Бонапарта или Гитлера" *Владивосток-новости*, "Жаркие речи Владимира Жириновского" 12. 8. 1999 (http://vl.vladnews.ru/9908/641_12/polit/polit01.asp, 검색일 1999. 8. 14.)).
- 30) 블라디보스토크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소한 인구수의 2/3는 사망 등의 자연감소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이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인데, 1992년과 비교할 때, 1993년 블라디보스토크 출생인구에서 645명이 감소했고 사망인구수에서는 1,459명이 늘어났다(Казаков, 1996, 112).
- 31)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노동시장의 경우, 이 도시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3,154명으로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2,146명), 북한인(842), 베트남인(60명), 유고슬라비아인(8명), 남한인(45명), 일본인(9명), 캐나다인(5명), 미국인(2명), 뉴질랜드인(2명), 몽골인(2명), 영국인(2명)(Казаков, 1996, 113-114).
- 32)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러시아전체의 상황과 맞물려서 취업문제에 있어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 저임금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리하여 1995년 말, 일자리는 1994년과 비교할 때 약 5%가 감소하였고, 생산이 정지됨으로서 무급휴가 중에 있는 노동인구가 약 6,000명 내지 7,000명이었으며, 공식적인 실업률은 0.21%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업률은 5%에 달하였다(Казаков, 1996).
- 33) Борис Резн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тся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12. 27. 1994.
- 34) 1989년 8월2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표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표간에 체결된蘇聯領內의 건설사업 협력의 원칙에 관한 합의)(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90, 5, 42.)
- 35) Юрий Савенков, "Ходоки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Известия* 2. 1. 1997
- 36) "Китайцы в России: Второе пришествие" *Известия* 9. 30. 1999
- 37) Алексей Распутный, ""Железный занавес" в Находке", Владивосток, 29 июля 1999г. (<http://vl.vladnews.ru/9907/citytent/news/news01.asp>).
- 38) 일설에 의하면 뽀그라니쓰니지역의 중국인 수가 15,000여명이라고 하기도 한다(Захарова, Миндогулов и Рыбаковский, 1994:16).
- 39) *Известия*, 14 мая 1994г., стр. 2. 중국인들에 대한 극동지역 러시아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다음에서 잘 나타나 있다: "中共在俄羅斯的非法移民問題, 也另凸顯出中共與俄羅斯長程關係的矛盾. 俄羅斯方面估計, 目前共有一百多萬的中國大陸人民居留在俄羅斯境內, 其中多數係非法入境. 據傳在俄羅斯遠東及西伯利亞的某些城鎮和村莊, 來自中國大陸的人口甚至超過當地俄羅斯人. 俄羅斯在一九九四年秋曾發起驅逐非法入境中國人的取締行動. 俄羅斯方面的確擔心, 來自中共的非法移民潮, 如果不加以取締, 中共遲早會覬覦俄羅斯的領土..."(戴萬欽, 1996, 72-73)).
- 40) 白嗣宏, 「俄羅斯朝野懼中國崛起」, 『亞洲週刊』, 2003年

1月27日-2月2日, 32.

- 41) “俄方有媒體報道說，江澤民曾親自要求莫斯科關照，俄國領導人曾收到中方來信，信中稱北京準備大量投資西伯利亞和遠東的原材料工業。此信在俄國引起一片恐慌。俄國評論界認為一旦出現這種局面，俄國將變成中國經濟蓬勃發展的原材料附屬地；還說到‘另外一個國家’強勢出現在西伯利亞，會對俄國形成壓力。”白嗣宏，「俄羅斯朝野懼中國崛起」，《亞洲週刊》，2003年 1月27日-2月2日, 32.
- 42) “俄國安全戰略考慮是：通向霍納特卡全線在俄國境內，俄國可以全面控制；同時還可以將石油賣給多國客商，包括日本，韓國，美國和中國，不受中國的買方壟斷；另外，工程可帶動油管經過的俄國地方經濟發展，但這條線路對中國不利。而俄國的‘中國威脅論’人士也提出，為了保護和經營油管和產地，中方勢必會把大量中國人派到俄國遠東地區。大片遠東地區的政治生態可能發生變化。”白嗣宏，「俄羅斯朝野懼中國崛起」，《亞洲週刊》，2003年 1月27日-2月2日, 33.
- 43) 러시아 하원의 동남아시아와 평양지역의 세부지정 학적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 의장(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дкомитета по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гео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인 모나스티르스키(Михаил Монастырский)는 다음과 같이 북한과 러시아의 유망한 경제적인 협력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против, имеет с Россией взаимодополняющие экономики. При этом в КНДР готовы закупать россий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ику, адаптированную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потребителю (а не только сырье, как на юге), и продавать нам не только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но и необходимые нашей стране сырьевые товары. Это тем более актуально, что около 80 предприятий, построенных в КНДР при техническом содейств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целиком заявлены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Так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терес Росс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лицо. И это отнюдь не вопрос далеких перспектив: есть все предпосылки добиться немедленной отдачи о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го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хаил Монастырский: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твечает коренны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вестия 6. 26. 1997. стр. 3.
- 44) 윤여상 (1999, 200), 최창동(2000, 84) 재인용.
- 45) Юрий Савенков, "Ходоки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Известия 2. 1. 1997
- 46)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적인 비율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수리스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보면 전체 외국인 8,200여명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6,086명이고, 북한인이 2,040명 그리고 베트남인이 114명으로 되어 있다(Anatoly Medetsky, "Cops fight foreign drugs, gangsters," Vladivostok News, 1999. 5. 14(<http://vn.vladnews.ru/1999/current/text/news2.htm>).

- /text/news2.htm).
- 47) 이 점과 관련하여 1995년 2월 24일 북한-러시아간에 합의된 새로운 임업협정에 의하면 러시아내의 북한 벌목작업장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질서와 범죄퇴치를 위해서는 러시아사법당국이 개입할 결정권을 가지며 북한측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 4(1995), стр. 72).
- 48) 이 계약은 나중에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주거시설의 제공을 둘러싼 문제로 무산되었다(Борис Резн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тся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1994. 12. 17.).
- 49) 1996년에는 치약 속에 아편을 숨긴 것이 발각되기도 하였다(Анна Феофилактова,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нарко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Сегодня 8. 28. 1996).
- 50) Георгий Безымен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обвиняет Пхеньян в наркобизнесе" Сегодня 11. 12. 1996. 이외에도 러시아에서의 북한 당국에 의한 마약밀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ourt jails N. Korean drug dealers," Vladivostok News, 6. 11. 1999 (<http://vn.vladnews.ru/1999/current/text/news4.html>, 검색일 1999. 6월 16일); The Current Digest of the Post-Soviet Press, 4. 12. 1995, vol. 47, no. 11, pp. 27-8 (<http://web2.searchbank.com/itw/session>, 검색일 1999년 7월 2일); "북, 마약 밀수로 헬기 구입" 디지털조선일보(www.chosun.com/w21data/html/news, 검색일 1999년 6월 9일); "Opiate of the party: North Korea fuels opium boom in Russ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5, 1996, vol. 159, no. 49, pp. 28-30(<http://web2.searchbank.com/itw/session>, 검색일 1999년 7월 2일).
- 51) 이러한 밀수의 대상은 마약뿐만 아니라, 금, 사슴의 뿔과 사향 및 응답,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극동의 벌목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도 포함되어 있었다("...the (North) Korean side is involved in smuggling gold and musk deer glands. But that's not all. They have been smuggling black bear bile and axis deer antlers worth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nnually. Chegdomyn taiga produce has been marketed throughout South-East Asia, yet the USSR hasn't received any profit." (Alexander Makhov, "Pyongyang's Long Hand," Moscow News, 1991, 11, 11).
- 52) Stanislav Glukhov, "Better in Jail than at Home," Moscow News, 1991, 11, 11
- 5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력의 구체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 간략히 언급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북한이 오랜 기간동안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이채문, 2001).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북한 노동력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직접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으나(구천서·이병화, 1997; 이채문, 1998, 170-75),

그에 못지 않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서 북한은 소련에 벌목공을 파견한 직후부터 매년 약 15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변홍상, 1992, 163; 유병일, 1992, 79). 이에 반해서 한국은 현대그룹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스베틀라야(Светлая)와 비킨(Викин)지역에서 1991년 연해주 목재산업(Приморлеспром)과 합작기업으로 산림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세제와 법규의 잣은 변동 및 환경문제와 소수민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Наталья Островская, "Концерн 'Hyundai' уничтожает ус сирийскую тангу" *Известия*, 6. 28. 1994, стр. 5). 따라서 한국족의 자본과 기술이 임업분야에서 러시아족과 40년 이상의 교류역사를 통해 습득된 북한족의 많은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예를 들어 한국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임업자원 개발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훨씬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文 獻

- 구천서·이병화, 1997, 연해주: 농업개발과 환경여건, 책만드는 집, 서울.
- 권희영, 1993,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國史館論叢, 41, 153-186.
- 국사편찬위원회, 199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35, 러시아篇 II), 456-457(Киммангем, И., 1926, Советск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ветское Приморье Январь - Февраль 1-2 Вдаливосток 1926),
- 극동문제연구소, 1999, 극동이모저모, 극동문제, 3월호, 136-137.
- 김명호 역, 1994, 스팔린체제의 한인 강제이주, 건국대학교 출판부(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1992,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Москва: МККА).
- 김춘경, 1997,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 생활과 운명, 교민논총, 1, 150-166.
- 김학준, 1995, 러시아史, 대한교파서주식회사.
- 戴萬欽, 1996, 對俄羅斯「中國政策」的展望, 問題與研究, 35(2), 65-77.
- 뒤바보, 1920, 俄領實記, 獨立新聞(上海版).
- 名越健郎, 1992, 시장경제에 기대가 부푼 캄차카, 極東問題, 12월호, 96-102.

- 바자노프·예프게니, 1997,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평화논총, 1(1), 191-205.
- 白嗣宏, 2003, 俄羅斯朝野懼中國崛起, 亞洲週刊(1月27日~2月2日), 32-33.
- 卞興相, 1992, 北한의 林業실태, 北韓, 1월호, 162-169.
- 심의섭·김종일, 1999,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동북아경제연구, 10(2), 33-53.
- 양준용 역, 1992, 北韓과 蘇聯과의 經濟協力, 1-169, 『기로에 선 北韓經濟: 對外經協을 통해 본 實相』, 韓國經濟新聞社.
- 유병일, 1992, '새땅찾기운동'으로 황폐화된 북한의 山林실태, 北韓, 5월호, 68-81.
- 윤여상, 1999,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자료집(1999년 12월), (사)북한인권시민연합.
- 이상근, 1996, 韓人露領移住史 研究, 探求堂.
- 이채문, 1998,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北韓實態(III), '98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부, 125-185.
- _____, 2000a,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국제지역학회), 4(1), 73-108.
- _____, 2000b,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15(1), 349-384.
- _____, 2000c,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연구: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3(2), 39-77.
- _____, 2000d,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와 만주 이주의 비교: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연구, 7, 81-122.
- _____, 2001, 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중국 노동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2001. 6. 7~6. 8, 전남대).
- 임계순, 1987, 만주·노령 동포사회(1860~1910),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569-651.
- 정혜정, 1995, 在러동포가 본 소련 벌목현장의 人權, 北韓, 12월호, 70-77.
- 정태수 편역, 1989, 蘇聯韓族史, 대한교파서주식회사(Ким, Сын Хва, 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

- 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 Ата: Наука).
- 조정남, 1996,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中澤孝之, 1998, 극동러시아에서 본 북한, 극동문제, 10월호, 50-55.
- 최창동, 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두리.
- 평범사, 1989, ロシア・ソ連を知る事典, 한길사 역(1992),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아는 사전.
- 何 薄, 1998, 二十世紀初俄國遠東地區的華商活動概況, 中國歷史學會史學集刊, 30, 273-318.
- 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上卷), 740-976, 語文閣.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極東露領に於ける黃色人種問題, 露・亞經濟調査叢書, 49, 1-214, 大阪毎日新聞社, 大阪(Граве, В, 1912,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амурье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уск XI), В.Ф. Киршбау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5年, 露西亞諸民族の研究, 露・亞經濟調査叢書, 1, 大阪毎日新聞社, 大阪(Станкевичъ, В., 1921, Судьбы народовъ России (Белоруссия, Украина, Литва, Латвия, Эстония, Армения, Грузия, Азербайджанъ, Финляндия, Польша, - Издание И. П. Ладыжникова, Берлинъ).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5年, ソビエト政府の民族政策に關する法規集成(第一卷), 露・亞經濟調査叢書, 17, 大阪毎日新聞社, 大阪(Клингера, Г. К. (Составитель), Лазовский, И. и Бибин, И. (Редакторы), 1928, СОВЕТСКАЯ ПОЛИТИКА ЗА 10 ЛЕТ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ОПРОСУ В РСФСР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а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Р и РСФСР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СФСР)).
- 大津定美, 2000, ロシア極東への中國人労働力の流入は威脅か: 北東アジア國際労働力移動の一側面, 國際協力論集, 8(2), 67-87.
- Akaha, Tsuneo, 1995, Russia in Asia in 1994, *Asian Survey*, 35(1), 100-110.
- Bazhanova, Natalia, 1992, Between Dead Dogmas and Practical Requirements: External

- Economic Relations of North Korea, 1945-1990*, Moscow, Russia.
- Cohen, A., 1996, *Russian Imperialism: Development and Crisis*, Paeger, Westport, CT.
- Ginsburgs, G., 1997, Cooperation in extradition matter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1(2) (Summer/Fall), 378-416.
- _____, 1992,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enal matter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6(1), 169-201.
- _____, 1990, Imported Asian labor in the USSR." *Asian Perspective*, 14(2), 5-45.
- _____, 1989, Labor policy and foreign workers: the case of North Korean *Gastarbeiter* in the Soviet Union, 399-424 (In George Ginsburgs (ed.) *Soviet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Policy*, Dordrecht, Boston).
- Ginsburgs, G. and Herta G., 1977, A statistical profile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oviet Union, *Asian Survey*, 17(10), 952- 966.
- Glukhov, S., 1991, Better in jail than at home, *Moscow News*, 11, 11.
- Hao, Y., 1991,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Far East: A Chinese perspective, *Korea and World Affairs*, 15(2), 230-258.
- Hauner, M., 1992,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Routledge, London.
- Helgeson, A.C., 1990, Population and labor force, 58-82 (In Allan Rogers (ed.) *The Soviet Far East: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Development*, Routledge, N.Y.).
- Heleniak, T., 1995, Econom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change in Russia, 1989-1995, *Post-Soviet Geography*, 36(7), 446-458.
- Hyer, E., 1996, Dreams and nightmares: Chinese trade and im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0(2), 289-308.

- Kim, W.B., 1994, Sino-Russian relations and Chinese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A porous border, *Asian Survey*, 34(12), 1064-1076.
- Kirkow, P., 1995, Regional warlordism in Russia: the case of Primorskii Krai, *Europe-Asia Studies*, 47(6), 923-947.
- Lilley, J., 1993, Great leader's Gulag: Siberian timber camps are relics of the Cold W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 9, 21-22.
- Lukin, A., 1998, The image of China in Russian border regions, *Asian Survey*, 38(9), 821-835.
- Makhov, A., 1991, Pyongyang's Long Hand, *Moscow News*, 11, 11.
- Minakir, P.A. (ed.), 1994, *The Russian Far East: An Economic Handbook*, trans. by Gregory L. Freeze, M.E. Sharpe, Armonk, N.Y.
- Moltz, J.C., 1995, Regional tension in Russo-Chinese rapprochement, *Asian Survey*, 35(6), 511-527.
- Siegelbaum, L.H., 1978, Another 'Yellow Peril': Chinese 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Russian reaction before 1917, *Modern Asian Studies*, 12(2), 307-330.
- Stephan, J.J., 1971, The Korean Minority in the Soviet Union, *MIZAN*, 8(3), 「蘇聯內韓國少數民族」『北韓』, 221-231.
- Wishnick, E., 1995, Whose environment?: a case study of forestry policy in Russia's maritime province, 256-68 (In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s.)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M. E. Sharpe, Armonk, N. Y.).
- Yakubovsky, V.B., 1996,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DPRK: problems and perspectives, *Korea and World Affairs*, 20(3), 451-73.
- Ваис, Т., 1975,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н СЕВ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9.
- Безыменский, Георгий, 1996, Перебежчик обвиняет Пхеньян в наркобизнесе, *Сегодня*, 11 декабря.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4, 72.
- Захарова, О.Д., В.В. Миндогулов и Л.Л. Рыбаковский, 1994, Нелегальная иммиграция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12, 11-21.
- Казаков, Ю.Н., 1996, Рынок тру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7, 112-115.
- Кан Г.В.,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1997,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Сеу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Ким, Герман, 1999,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 1945 г.*(книга первая) Алматы: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мени б. сүле йменова.
- Михеев, Владимир и Геннадий Чародеев, 1997, Авилов подверг Китай двойной проверке, но кто даст гарантии, что ящур из-за Великой стены не гуляет по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звестия*, 14 марта.
- Островская, Наталья, 1994, Концерн 'Hyundai' уничтожает уссурийскую таигу, *Известия*, 28 июня.
- Резник, Борис, 1993, Корейцы расконсервировали в тайге старый урановый рудник, *Известия*, 23 июня.
- _____, 1996, Русский с китайцем... Игра без правил. Кто в выигрыше?, *Известия*, 11 ноября.
- _____, 199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тца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27 декабря.
- Савенков, Юрий, 1997, Ходоки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Известия*, 1 февраля.
- Феофилактова, Анна, 1996,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нарко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Сегодня*, 28 августа.
- Хроленок, С.Ф., 1995, Китай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отходники на золотых приисках рус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 в.), *Восток*, 6, 70-81.
- "Михаил Моностырский: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твечает коренны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вестия*, 26 июня, 1997.
-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90, 5, 42.

동아일보 1997. 12. 3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

디지털조선일보 2000. 3. 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

디지털조선일보 2000. 10. 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10/200010260061.html>].

디지털조선일보(www.chosun.com/w21data/html/news).

岩下明裕, 1999, 從遠東俄羅斯看中國(1992-1996) (<http://www.cis.yamauchi-pu.ac.jp/~iwachita/page/index/fore.../01.htm>, 검색일 1999. 7. 23.)

Court jails N. Korean drug dealers, *Vladivostok News*, 1999. 6. 11. (<http://vn.vladnews.ru/1999/current/text/news4.html>.

Cops fight foreign drugs, gangsters, *Vladivostok*

News, 1999. 5. 14. (<http://vn.vladnews.ru/1999/current/text/news2.html>).

Opiate of the party: North Korea fuels opium boom in Russ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12. 5, 159(49), 28-30 (<http://web2.searchbank.com/itw/session>).

The Current Digest of the Post-Soviet Press, 1995. 4. 12, 47(11), 27-8 (<http://web2.searchbank.com/itw/session>).

Чародеев, Г., 1999, Сеул положил глаз на наших крейцев, *Известия*, 3 Сентября, "Жаркие речи Владимира Жириновского," *Владивосток-новости*, 12 августа, 1999 (http://vl.vladnews.ru/9908/641_12/polit/polit01.asp). "Китайцы в России: Второе пршествие" *Известия*, 30 сентября, 1999.

Распутный, Алексей, 1999, "Железный занавес" в Нахodka, *Владивосток*, 29 июня (<http://vl.vladnews.ru/9907/current/news/news01.asp>).

(접수 : 2003. 1. 6, 채택 : 2003. 2. 20)